

서평

문화적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평화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서울: 창비, 2020)

이은정, 『베를린, 베를린』 (서울: 창비, 2019)

조은성 (서울대)

2019년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그러진 이후 해빙되던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해갈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이런 고민과 실천적 제안을 담은 두 책이 출판되어 반가운 마음으로 서평을 쓰게 되었다. 지난 9월 출간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갈라진 마음들』(부제: 분단의 사회심리학)은 평화라는 새로운 감각을 익히기 위해 그간의 분단체제가 쌓아온 감정구조를 들여다보고 이른바 ‘분단적 마음’의 균열과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분단에 대한 무감각이나 과잉된 감정, 혹은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 등이 백낙청이 이야기했던 ‘후천성분단 인식결핍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이라면, 과잉된 위협감을 느끼는 북조선의 감정구조 역시 분단체제가 생산해 온 사회적 감정이라고 지적한다.

“분단이 문제적인 이유는 이성 수준만이 아닌 감정을 생산한다는 데 있다.”¹⁾

분단을 배태한 언어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감정의 양태들을 실제 구체적인 사건들을 예로 들고 그에 사회적 분석을 덧붙이면서, 저자는 남한 시민들, 북조선 인민들, 조-중 접경지역 및 남한 내 북조선 출신자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개인의 마음, 감정은 사회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감정’과 유리돼 있지 않다. 분단현실이 빚어낸 남북의 사회적 감정구조는 문화 속에 자리한 폭력의 한 형태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대결지향적 담론에서 비롯되는 상대방에 대한 반감이나 증오의 감정은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열린 인식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평화 감수성이 자라는 것을 저해해 왔다. 평화 연구에서 ‘사회적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재생산되는 남북의 감정 레짐을 직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평화의 기반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해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의 실천적 측면에 주목하고 한홍구 교수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학계에서는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시민참여형 평화국가론을 제시하거나(구갑우),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을 주장하는(서보혁) 등 거시적 차원의 여러 논의들이 전개돼 왔는데, 최근 용채용, 은용수의 경우는 국제정치의 감정이론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남북의 오랜 적대적 관계 속에서 쌓여온 감정 구조를 생각했을 때 국가 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감정연구는 평화연구에서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가 분단된 한반도의 안보 패러다임을 떠받치는 여러 기제들 중에서 사람들이 갖는 감정의 행위성에 대해 다소 가볍게 다룬 측면이 있

1)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과주: 창비, 2020), 26쪽.

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 책은 그러한 사회적 감정의 구성성(constructedness)과 수행성(performativity)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문제화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갈라진 마음들』의 후반부는 탈북민의 70%에 달하는 여성들이 탈북 과정 및 정착 이후에도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북조선여성에게 드리워지는 성애화된 담론들을 젠더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다루고 있다. 북조선을 떠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동한 북조선 출신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이유와 관련해서 이들이 “북조선사회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공적 영역에서 한발짝 소외되어 있었다”²⁾는 점, “조선족 여성의 이주가 만들어낸 여성 노동력의 부재”³⁾가 조-중 접경지역에서 북조선 이주 여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하고 그것은 돌봄노동과 같이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한 “젠더화된 공간”⁴⁾이었다는 점, 이주한 북조선 어머니들에게 강하게 작동하는 모성이데올로기, 가족이데올로기가 조-중 접경지역에서 경제적 삶을 사는 북조선 여성들에게는 “이중적 형태”⁵⁾, 혹은 또다른 형태로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 저자가 전개하는 여러 분석들은 여성과 젠더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덧붙여 『갈라진 마음들』에는 북조선 출신 사람들과 수많은 인터뷰를 하며 느꼈던 감정 등 저자의 인간적인 진솔한 이야기들도 실려 있어, 독자들은 책을 읽을수록 저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북조선에 다가가면 갈수록 내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가 눈에 들어왔고, 분

2) 위의 책, 211쪽.

3) 위의 책, 248쪽.

4) 위의 책, 248쪽.

5) 위의 책, 264쪽.

단구조에서 나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가 만난 수많은 북조선 사람들은 내 삶 속의 분단의 작동을 감각하게 해준 고마운 이들이었다.”⁶⁾

이 책은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아래 진행해 온 연구프로젝트의 결실이기도 하다. ‘마음’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구할 것인가. 저자도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마음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문제시하는 ‘마음의 지질학’이라는 방법론적 시도”⁷⁾는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사실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분단을 문화적으로 읽어내려고 할 때 그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구조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정교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분과학문 연구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방법은 결국 연구자가 설계, 수행한 여러 차례의 실험들이 쌓이고 그 연구물들이 학계의 비판적 검토를 거처가면서 한발 씩 진일보할 수 있게 된다. ‘어떤 학문적 과제가 있다’라는 거창한 지적보다는 새로운 실험들을 해가는 연구자들을 응원하고 싶다. 그럼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 뭔가를 덧붙여야 한다면, ‘마음’을 읽어내는 방법으로 주요하게 쓰이는 인터뷰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술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사회의 집합감정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의 보도나 국가의 정책, 문화적 생산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수기나 문학작품 등 다양한 분석자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북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여러 다른 이유로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분단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도 연구대상에 포함이 돼야 할 것이다. 감정연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감정과 개인의 배경, 상황과 같은 조건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두고 이론

6) 위의 책, 305쪽.

7) 위의 책, 120쪽.

적 논의와 경험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이런 기존의 논의 속에서 ‘마음’이 emotion, feeling, affect 등의 개념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분단된 한반도 연구에 적실하고 유용한 하나의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도 궁금하다. 한편 『갈라진 마음들』은 대중서와 학술서의 중간지점에 놓여 있다. 대중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면서도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여러 이론적 논의 또한 포함돼 있어 가독층이 넓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책은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의 『베를린, 베를린』(부제: 분단의 상징에서 문화의 중심으로)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산지 36년, 그 중 베를린으로 산지 13년이 되어가는 저자가 들려주는 베를린의 1945년 이후 역사 이야기다. 책은 2차 세계대전 패전과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대 승전연합국의 분할통치 하에 놓인 독일의 상황에서부터 시작한다. 베를린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던 동부 지역에 속했지만 도시의 정치적 상징성을 이유로 4대 승전연합국이 네 개의 구역으로 분할 점령되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이전의 이야기부터 지금 베를린에 여행을 가면 관광객들이 꼭 들리곤 하는 체크포인트 찰리 검문소를 둘러싼 갈등과 위기, 그 경계를 넘어 경제활동을 지속했던 베를린 주민들의 삶, 분단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우편통신과 지하하수터널, 동서베를린을 이었던 전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기술적 교류 접촉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생생한 역사적 사진들과 함께 펼쳐진다. 1989년 베를린을 가로지르던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베를린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들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이었던 2019년 이 책을 출간한 저자는 ‘닫는 글’에서 베를린에 오는 한국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책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결국 베를린의 경험을 통해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분단체제와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다르다. 동서독을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도 하지 않았고, 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류할 수 있었다.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고, 여러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가족과 친척을 만날 수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고 70년 이상 살아야 했던 우리와는 정말 상황이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독일 분단체제의 극복을 가져왔을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와 독일이 완전히 달랐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 그리고 왜 달랐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묻고 또 묻는다.”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독일 베를린의 경험은 특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 베를린』에서 풀어놓는 냉전과 탈냉전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은 남북이 1945년 미-소의 점령 속에 분단정부 수립으로 나아가고 냉전의 대결 속에서도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한반도에서 남한의 단독선거가 결정될 무렵 독일의 분단이 기정사실화된 사실이나, 1948년 남북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선 다음해 동독과 서독이 건국되었다는 것 등 한반도와 독일의 역사적 모멘트에 대한 비교가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함께 나온다. 저자가 “통일을 꿈꾸기 이전에 먼저 평화를 만들었던 동서베를린 이야기”⁹⁾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이 책은 아직 분단구조가 촘촘히 작동하는 한반도에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추천하기 좋은 대중서적이다.

8) 이은정, 『베를린, 베를린』 (파주: 창비, 2019), 252~253쪽.

9) 위의 책, 257쪽.

이와 같이 『갈라진 마음들』과 『베를린, 베를린』은 각각 한반도와 독일의 분단체제 해체와 관련해 ‘마음’과 ‘문화’를 중심에 두고 문화정치적 개입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책이 모두 강조하는 것은 결국 ‘문화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분단적 마음과 구조를 약화시켜 갈 것인가. 『베를린, 베를린』이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위로부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면, 『갈라진 마음들』은 우리 문화와 일상 속에 깊이 내재된 분단적 감정구조를 직시하고 문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한 게 2007년 2월이었다. 13년 전 활발했던 남북교류나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경제협력은 이제 아주 먼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베를린, 베를린』에는 독일이 통일된 후인 90년 당시 베를린에서 동-서독의 경찰 관리자들이 함께 근무하며 상이한 조직 문화와 작업방식으로 갈등을 겪은 이야기가 나온다. 처음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체득해 갔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2007년 2월 개성공단에 갔을 때 남한의 관리자들과 북조선 노동자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서로 다른 노동문화에서 기인한 갈등들이 꽤 있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하며 소통하다 보니 이해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남북이 모두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는 남북의 사람들이 제한적이거나 직접 서로를 접촉하고 다름을 인정한 속에서 현실 가능한 평화를 조금씩 만들어갔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의 익숙함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¹⁰⁾ 다시 김성경의 책 첫 장에서의 화두로 되돌아가 본다. 분단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분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10)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306쪽.

조은성(Cho, Eun-Sung)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에서 규장각 펠로우로 있다. 남북한 근현대사 연구자로 과학기술 담론, 물질 표상, 언어상징과 사회통합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역사학과에서 “The Thread of Juche : Vinalon and Materially-Embodied Interdependencies in North Korea, 1930-2018”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